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이른둥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만남의 장 열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는 7일 이른 둥이 가족을 위한 특별한 만남을 주선했다. 이번 행사는 250여 명의 가족이 참가하여 식전행사에서 △가족사진 촬영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과 함께 기념촬영 등으로 행사 분위기를 띄웠고, 본 행사에서는 △축하 케이크 커팅 △이른둥이 아기 성장 동영상 시청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24시 동영상 시청 △이른둥이 부모님 양육경험과 소감발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배 이른둥이들이 펼치는 축하공연을 본 후배 이른둥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욱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병원을 수료한 전공의들이 참여해 부모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근무 당시 이른 둥이 치료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녔던 전공의들은 오랜만에 만난 이른둥이와 반가운 재회를 하며 끈끈한 정을 이어갔고, 인형탈을 쓴 의료인은 건강하게 자라준 아이들이 고마운 듯 아이를 꼭 안아주어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개원 초부터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기술이 국내·외 최고수준을 자랑했다. 출생체중이 750g 미만에서 약 50% 이상, 1,000g 미만에서는 약 70% 이상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14년 7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지정받았고, 이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걸맞은 최신장비와 친환경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한 바 있다.



02 2015 환자안전의 날 행사 성공리 완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6일 환자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환자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병원 로비에서는 2일부터 6일까지 환자안전 사진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전시해 내원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직원과 내원객들은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여 환자안전 활동과 환자안전 홍보가 반영된 사진에 투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행사장 주변에는 환자안전 슬로건 공모작을 전시하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을 다짐하는 서명행사도 함께 펼쳤다. 또한, 기념행사는 △환자안전 슬로건 선포식, 환자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외치는 부서별 동영상 상영 △도전! 골든 벨 대회 등으로 진행했다. 오민구 병원장은 "환자안전은 우리가 모두 지켜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병원의 핵심 가치이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안전 공모전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재활의학과, 슬로건 부문 최우수상은 81병동이 수상했다. 환자확인율과 근접 오류 보고 건수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환자안전 우수부서는 101병동과 진단검사의학과가 으뜸상을 받았고, 한방내과 안립 전공의가 골든 벨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03 아스타나 박람회에서 맺은 인연, 팸 투어까지 이어져 '눈길'

국제진료센터는 5일 고양시청 주최로 한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립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원내검사실, 병동, 최신설비와 장비를 소개하는 팸 투어를 진행했다. 본원을 방문한 한 의사는 "박람회에서 친절히 들은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고 방문 소감을 전하고, "고양시의 여러 병원을 관광했지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가장 믿음직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한방 협진체계와 재활프로그램이 카자흐스탄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팸 투어는 시설견학을 넘어 아스타나박람회에서 소개한 한국 의료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본원이 국제의료분야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4 병동간호팀, know-how 공유의 장 열어

병동간호팀은 11일 병동간호팀 간호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동간호팀 노하우 공유의 장_더 Best practice 더 Best CS'의 주제로 know-how 공유의 장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BIPAP 관리 및 간호 △Acute stroke 환자 간호 △간호사의 self leadership △간호 상황에 따른 간호과정 적용 순으로 진행했고, '언어순화 캠페인'에서 선발된 11명의 간호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동상이몽'의 주제로 만든 동영상 시청시간에는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간호사의 입장 차이를 공유하고,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노하우 공유의 장' 행사 후에는 타부서의 각 부서장과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팀원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해 HOPE DAY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간호사는 "평소 접하지 못했던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고, HOPE DAY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며,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5 환우 안전을 최우선으로, 초기진압 소방훈련 시행

시설관리팀은 5일 서편주차장에서 교·직원 약 150여 명을 대상으로 원내 화재 발생 시 대처해야 할 화재진압훈련을 시행했다. 이날 부서 대표로 훈련을 받은 직원은 교육을 받지 못한 부서원들에게 초기 화재 진압 방법을 전파하여, 화재 발생 시 전 교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진압은 초기 5분, '골든타임'이 아주 중요하다. 이때를 놓치면 연소 확산 속도와 피해면적이 증가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훈련은 골든타임에 즉시 시행해야 할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확대 시 시행해야 할 소화전 사용법, 두 가지를 직접 실습하는 실전 훈련으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점검한 시간이었으며, 소방안전 관리자는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의 소화기와 소화전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환자와 본인을 지키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06 따끈따끈한 '꼬치 어묵' 이벤트!

영양팀은 11일 직원식당에서 북북북 뽑기 '꼬치 어묵' 이벤트를 진행했다. 교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10월 팝콘 이벤트보다 당첨 확률을 더 높여 '1등 봉축상 10명', '2등 연꽃상 30명', '3등 동자상 50명'을 뽑아 고급 어묵을 제공했다. 이벤트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일본선술집 분위기를 연출하여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이날 분위기를 사진으로 남기던 직원은 지난번에 이어 무소유(꽂)를 뽑고, 또 '꽂'이라며 아쉬워하면서도 다음 달 이벤트가 기대된다고 했다. 빼빼로 Day 기념 '꼬치 어묵 북북북 이벤트'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바라는 영양팀의 마음이 교직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연말정산 Tip⁺

2015년 연말정산, 지금부터 준비해요!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남은 2달 동안이라도 절세전략을 꼼꼼히 준비하셔서 풍성한 13월의 급여가 되기 바랍니다.

2015년 연말정산 대비 Point

체크 Point 하나

체크카드·현금 소득공제 : 15년 하반기(7월~12월)와 16년 상반기(1월~6월)를 비교하여 체크카드나 현금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50%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체크 Point 둘

연금저축 및 개인 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가. 연금저축 : 연간 400만 원까지 납부금액의 12% 세액공제

나. 개인 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단, 5년 내 해지시는 기타소득세 15% 부과함에 유의

체크 Point 셋

장기펀드 소득공제 : 연간 600만 원 납부 한도로 납부금액 40% 소득공제

단,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서 15년 12월 31일 까지만, 가입 가능

체크 Point 넷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지급액 750만 원 한도에서 10% 세액 공제

단, 무주택자로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거주 요건,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함.

알 리 미

덕양구보건소 건강강좌 주제: 당뇨망막증과 녹내장 | 강사: 안과 김마라다 교수

일시: 11월 19일(목) 10:00 | 장소: 덕양구보건소

화계사 건강강좌 주제: 암예방과 치료 강사: 혈액종양내과 김도연 교수

일시: 11월 22일(일) 11:00 | 장소: 화계사 교육실